

지역학은 현지어 능력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과 국가의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. 지역학협동과정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립되어, 중국·일본·유럽·동남아·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학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.

[재학생 학술 및 국제교류 동정]

- 현지조사발표회 (4월 24일)
강효인 (이스라엘 텔아비브 현지 조사 예정)
양유리 (중국 북경 조사예정)
한동균 (일본 오키나와 조사 예정)
- 학술논문 출판
최정애 (박사 3학기: 유럽) “독일 극우정당 부상배경: 유로화, 이주민 요인을 중심으로”,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발간학술지 『오토피아』 제33권 1호, 2018
- 학술논문 발표 (6월 1일, 한국정치정보학회)
Xien Fei (석사 4학기: 동남아) “The Comparison Songkran Festival in Thailand and the Water-Sprinkling Festival in China”

한동균 (석사 3학기: 일본) “전후 일본 정부의 정체성과 중일 국교정상화”

Yang Jiadi (석사 3학기: 중국) “중국에 대한 EU 지리적 표시 보호 시스템의 영향”

배은진 (석사 2학기: 유럽) “영국 노동당과 노동자 계층의 관계 변화와 브렉시트에의 영향”
- 일본 게이오대 복수학위
기민형 (통합 6학기: 일본) 2018-1 석사학위 졸업 예정
한동균 (석사 3학기: 일본) 2018-2 파견 예정
- 학생 수상 내역
Frank Moehring (박사 3학기: 동북아) 연세대학교 대학원 우수 학술 논문상

[연세-이화-서강 학술 세미나]



국) 원우가 '중국 내부변화에 따른 중국연구방법 변화에 대한 고찰'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.

[제38회 지역학 학술제]



5월 17일, 백양누리 헬리콥스홀에서 열린 학술제에서 '미중 무역전쟁'에 관한 정철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의 강연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.

[연세·게이오·푸단 대학 필그림 워크샵]

6월 9일, 중국 푸단 대학에서 필그림 워크샵이 개최되었다. 경제 통합, 정치 안보, 협력, 민간교류 등을 주제로 학생들의 팀별 토론 및 발표가 있었다.



[독일 예나대학교 국제학술회의]

6월 22일, 독일 예나대학교에서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and East Asia라는 주제로 학술 회의가 개최되었다. 우리학교에서는 기민형 (통합 6학기: 일본) 원우가 'The role of coalition government on culture of contrition in Japan,' 최정애 (박사 3학기: 유럽) 원우가 'Partisanship of German voters with migration background,' 한동균 (석사 3학기: 일본) 원우가 'Japanese post-war identity and Sino-Japanese diplomatic normalization,' 그리고 배은진 (석사 2학기: 유럽) 원우가 'Division between the Labour Party and the working class: Case of Brexit referendum'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.



[졸업생 동정]

이형근 (2017-2 졸업: 유럽)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